

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.

추방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타인들을 보았어도 막상 우리 식구가 잡혔다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.

제롬 목사님 동네는 시골이라 보통 7 시 넘어서 잡으러 다니는데 오늘은 6 시부터 잡으러 다닌 겁니다.

저희는 8:21 에 연락을 받고 구치소에 가서 우리 딸(제롬 목사님의 아내 알나 사모님)이 잡혔다니까 모두 눈이 사발만해졌어요. 가윤이가 잡힌 줄 알고요(haha)(haha)

걱정 말라고 하더니...

잠시 후에 알나 사모님이 탄 트럭이 들어왔어요.

오늘은 벼룩시장에서 장사하는 날이라 시장에 내려 주고

집에서 겁에 질려있는 제롬 목사님을 시장에 모셔다 드리고

집에 오니 11:31 입니다.

시장 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싱으로 장사하는 아모스 누나 만나서 바나나 사 먹는데 돈을 안 받네요. 감사히 먹고 한숨 돌립니다.

우리 가엾은 아이티 난민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.

내일은 이민 경찰들에게 핫도그 대접해야겠어요.

매일 잡혀 있는 아이티인들을 보아 왔지만 막상 우리 식구가 당하니까

이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.

제롬 목사님은 사색이 되어 있고 저희도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.

지금은 우리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.



|

알나 사모님과 제롬 목사님